

부처님 탄생성지로 행선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모습. 이들은 3월 14일 룸비니 마야데비 사원서 불교중흥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오로지 전법…곳곳에 '佛緣 씨앗' 심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⑤ 쿠시나가르서 카필라바스투까지

가는 마을마다 현지인 소통 행보
열린 법석에 타종교인 마음 열어
인도 불자들 순례… 결집 이끌어

룸비니서 불교중흥 기원법회 봉행
자승 스님 "대중 속으로 떠나라"

내국인만 통과 가능했던 순례길
한국, 인도, 네팔 3국간 외교협상
자승 스님 강력 요청에 물꼬 터
순례단 행선, 카필라바스투 도착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순례 5주차에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로 향해 행선을 하며 나아갔다. 완전한 열반에 이른 부처님의 시작점, 부처님이 태어나신 까닭을 되짚는 여정이었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일곱 걸음 걸으시고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는 당신이 왜 사바세계에 나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아내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존귀한데, 세상이 온통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미 부처님은 자신이 세상에 나툰 이유가 '구세대비'임을 즉, 세상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임을 말씀하고 있다. 결국 불교의 목적 역시 그와 벗어나지 않는다. 대중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통해 중생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사부대중이여 중생 속으로 떠나라"

중생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중생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례단 회주 자승 스님이 3월 14일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설한 소찬법문에는 이 같은 고민들이 담겼다.

회주 자승 스님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다. 법만 전하셨다.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또 다비를 통해서 여덟 나라에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다"며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목적이 '전법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러한 전법 포교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불사 치중과 권위의식 등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는 불교의 현실에 대한 불제자로서의 참회였다.

자승 스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보다는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모시옷 빳빳이 다려서 입는다"며 "거들먹거리고 폼생폼사 하는 이런 불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지탄했다.

스님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불자·비불자를 떠나 '국민', 그리고 '사회', 또 '사부대중'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전도법문을 갈음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사부대중이여 떠나라"고 외쳤다.

구체적 행동 강령 '108원력문'

전법을 통한 불교중흥 원력에 대한 실천방법은 30일차인 3월 10일 초안이 공개된 '108원력문'에 담겼다.

108원력문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한국불교 중흥'이란 상월결사 정신을 담았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결사의 대의명제 아래 전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신을 담았다"는 게 박기련 순례단 운영지원단장(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108원력문의 방향은 총 5가지로 삼귀의, 사무량심, 삼법인, 사섭법, 사성제를 근간으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업 등을 주 내용으로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 21세기 전도선언을 내용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108원력문은 삼귀의로 시작된다.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등 구절이 시작된다. 팔정도 부분에선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바른 언어로 진실하고 모두가 유익한 말만 하겠습니다' 등의 실천 내용을 담은 것이 108참회문과 극명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여기에 불자들이 지켜야할 5계와 십선업도 국민들도 쉽게 느껴지도록 문장으로 구성됐다.

자승 스님은 "포교에 소홀히 하며 승복입고 앉아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직설한 후 "원력문은 열심히 부처님 뜻에 따라서 포교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취지를 알렸다.

박기련 단장은 "국민 속에서, 사회 속에서, 중생 속에서, 즉 세상 속에서 한국불교가 다가가자는 그런 가르침을 담았다. 국민과 함께, 중생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생 향한 법석, 인도의 佛緣으로

중생 속으로 나아가는 시도는 인도 순례 곳곳에서 이뤄졌다. 3월 12일 순례단은 숙영지인 브렛터와 마을에서 저녁 예불 후 단주와 염주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이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열린 법석을 펼쳤다.

마하라즈간지 지역은 무슬림 수도 상당해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간의 종교 갈등이 상존한다. 불교도가 5만 명에 달하지만 소수일 뿐이다.

이날 저녁예불 후 순례단은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주민들과 불연맺기를 고리로 적극적으로 이들과 소통하자고 한데 따라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여러 마을 대표들이 저녁예불 전 부처님 앞에 공양물을 올리고 순례단은 경건하게 예불을 올렸다. 저녁예불 동안 눈치를 보며 합장을 하는 불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종교인들 등으로 긴장감까지 살짝 감돌았다.

하지만 힌두어로 된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과 순례단 소개에 이어 무슬림인 마하가즈간지 지역 치안책임자 무하마드 자심 치안판사의 말에 다들 표정이 풀렸다.

무하마드 자심 판사는 부처님이 로히니 강에서 설하신 화합의 설법을 이야기하며, 이번 순례단의 방문으로 이 지역민들이 그 가르침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심 판사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화합의 종교인 불교를 나쁘게 보는 이들이 없다. 어려서부터 지역의 유산인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 대한다면 세계평화도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풀어진 분위기 속에 순례단은 회주 자승 스님으로부터 흑옥과 백옥으로 된 단주를 받아 여러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각자 조를 나눠 종교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 나뉘어 앉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다.

단주를 선물로 전달하자 굳어있던 분위기는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변했다. 단주 받기를 거부하던 일부 무슬림들도 결국에는 스님들에게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청하기도 했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이들 등으로 예불 공간은 가득찼다.

불자인 콜리족 안쥬 스리 고탐 씨는 "마하라즈간지 지역 전체에 5만명 가량의 불자들이 있다"며 "우리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닿은 람그람 등을 참배하며 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쥬 스리 고탐 씨는 "한국에서 불교순례단이 방문해 주셔서 더욱 힘이 난다. 순례단을 보니 환희롭다"고 했다.

상월결사 순례 따라 印불자 결집

부처님 길을 따라 걸으며 인도 땅에 불심을 전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불연 맺기 행보는 인도 현지 불자들의 결집을 이끄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실제 인도 UNI뉴스는 3월 13일 "인도 모디정부 집권여당 BJP 보드가야 지역위원장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본받아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3월 13일부터 베삭데이인 5월 5일까지 순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부다가야 지역인 비하르주의 불자들로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순례 입재식에 참여한 것으로 전했다.

인도 불자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전법 포교에 매진하는 것을 따라 총 534개 마을, 10800km를 순례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비하르주 주도이며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2월 28일 행선한 파트나에서 회향한다.

이들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처럼 선두차량에는 상월결사 큰부처님과 닮은 부처님을 모셨다. 또 낙타,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같은 방식으로 행선을 진행한다. 인도 불자들은 순례 실무 차원에서 2월 22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행선을 참관했다. 당시 실무책임자 판카 파스완(PANKAJ PASWAN) 씨를 비롯한 불자 200여 명이 회주 자승 스님에게 인사하고 이번 순례 안내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력으로 만들어낸 인-네팔 순례길

룸비니에서 불교중흥 기원법회를 봉행한 순례단은 이제 전법 성지인 쉬라바스티로 나아갔다. 행선을 원칙으로 한 순례단에게 새벽 국경통과는 어려움이 많았다.

네팔 카필라바스투인 틸라우라코트부터 인도 카필라바스투인 피프라흐와까지는 차도로 16km, 걸으면 더욱 가까운 거리기에 이 두 곳 모두가 옛 카필라바스투의 같은 권역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경이 나뉘고, 현재 지명이 다르고, 국가간 입장이 갈리며 서로 진위 여부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인도 피프라흐와에서 카필라바스투 유적군과 사리함이 발견되며 쉬라바스티와 인도 카필라바스투를 통해 룸비니, 네팔 카필라바스투를 여행하는 이들이 늘자 소나울리를 거점도시로 국제공항과 간선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한 네팔에서 길을 막았다는 설도 제기한다.

국경분쟁부터 부처님 유적을 둔 양국의 불편한 관계로 쓸데없는 번문욕례만 늘어, 네팔 출입국의 인파가 몰리는 소나울리에서는 수속에 반나절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게 다반사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당초 2020년 봉행하려던 데서 코로나로 인하여 펜데믹 종료 무렵인 2022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다. 3년간 국난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순례를 거쳤지만 한국에서의 순례와 인도에서의 순례는 많은 것에서 달랐다.

박기련 단장에 따르면 순례단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크게 두가지로, 첫 번째는 타지에서의 숙영과 의료 등 안전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이날 도보로 행선한 카클라우와 루트에서의 국경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는 양국의 미묘한 외교 문제를 제3자인 한국, 그리고 순례단이 풀기 어려웠기 때문에 난제로 꼽혔다.

이 같은 난국에 회주 자승 스님이 물꼬를 텄다. 회주 스님은 외교부와 대통령실, 인도정부와 네팔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이날 순례단은 역사적인 발걸음을 하게 됐다.

순례단은 2월 9일 출국 당시에도 카클라우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정확한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바로 실무차원의 실행방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3월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됐다"는 연락이 왔다. 순례단이 요청한 '대리 비대면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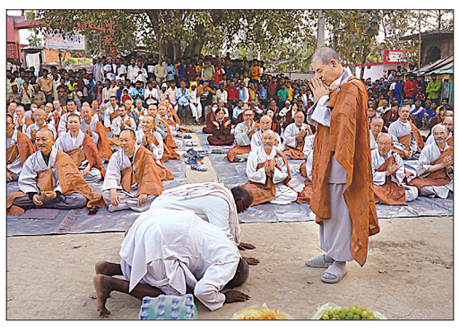
한국정부의 도움과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불교순례를 환영하는 네팔정부의 호응이 이어지며 사상 유래없는 '대리 비대면 출입국'이 이뤄졌다.

순례단 운영지원단의 스텝들은 순례단이 행선을 위해 취침하는 저녁 11시경 소나울리의 네팔 국경 사무소로 갔다. 출국 수속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소나울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네팔정부의 협조로 먼저 스텝들이 순례단의 여권과 명단으로 대리 비대면 출국 수속을 밟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소나울리의 길이 아닌 막혀있던 국경선을 넘어서인지, 이날 순례길에서는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나와 순례단을 엄호했다. 엄중한 경호를 받은 순례단은 14km를 더 걸어 인도 카필라바스투가 있는 피프라흐와에 당도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참배하고 회향의식을 가졌다.

부처님이 사문유관하고 유년기를 보낸 네팔 카필라바스투로부터 16km 떨어진 곳, 석가족 하녀의 혈통이라는 놀림을 받고 석가족 정벌의 원을 세운 코살라국의 비두다바왕에 의해 멸망한 석가족들이 피난하에 세운 새로운 카필라바스투에는 석가족들이 부처님 입적 후 나온 사리 8분의 1을 받아 세운 사리탑이 있었다.

순례단은 양국 화합의 물꼬를 튼 이날의 순례와 부처님 사리탑, 석가족의 멸망을 담은 카필라바스투를 보며 행의 과보에 대한, 순례로 인한 중흥을 화두로 행선했다.



불자인 브렛터와 마을 주민 대표들이 자승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있다.



종도감 호산 스님이 아이들에게 단주를 나눠준 후 이들을 보며 웃고 있다.



룸비니 동산으로 들어서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모습.



마야데비 사원에서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순례단 사부대중. 사진=공동취재단